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오늘의 주요기사

조간 (2016.04.25)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홍보팀



	001	,	
	006	'	' 1
	009	'2015	' 22
	003	"	, 가 "
	i03	'	' ...
	011		
	011		
	009		
	001		'4 '
	i03		3
	009		
	009		
	001	"	가 "
	016		500
	018		
	004	,	6
	a08		復黨 尹 ...
	003	發	
	005	,	7
	001		
	i03		...
	004	.	
	005		委 가
	009	,	7 ...
	001	3	
	002	180	
	004	'	'
	i03	'	' ...



001



002

28 1



i01

道



001

" 가 ' ' "



002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22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열린 2015 세계 책의 수도 폐막식에서 표창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 1년 마라톤 완주

45개 사업 마무리... 유공자 23명에 표창수여도

2015년 4월23일부터 추진된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사업이 1년간의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시는 최근 송도 트라이볼에서 '2015 세계 책의 수도' 폐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은 모두 6개 분야에서 총 45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이번 폐막식을 끝으로 1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했다.

폐막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애장도서관에서 추천 명사, 도서관 및 서점 관계자, 군인,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폐막식에서는 사전행사인 '작은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오는 6월 은퇴하는 수봉도서관 송영숙 관장이 출간한 책의 판매 수익금을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에 기부하는 도서 기증식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1년간 책의 수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을 세운 유공자(단체) 23명(시장상 16명·의장상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밖에도 도서관 및 서점계 관계자들은 '인천의 독서열 향상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인천의 독서열을 향상시켜 인문도시 및 인천의 가치 재창조에 힘을 보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책의 수도 넘어 '책의 도시, 인문도시' 도약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대단원 막 내려

지난해 4월 23일 개막한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이 1년간의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2015 세계 책의 수도' 폐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폐막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애장도서관에서 추천 명사, 도서관 및 서점 관계자, 군인,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은 지난해 4월 23일 개막해 모두 6개 분야에서 4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날 폐막식을 끝으로 1년 간의 사업을 마무리 했다.

이날 폐막식은 사전행사인 '작은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오는 6월 은퇴하는 수봉도서관 송영숙 관장이 출간한 책의 판매 수익금을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에 기부하는 도서 기증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5 세계 책의 수도' 경과보고에 이어 인천의 우수한 기록 문화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2015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을 통해 300만 시민이 함께 하는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인문도시 인천을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무빙 샌드아트'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지난 1년간 책의 수도 사업 추진 유공자 23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명사 40인이 추천한 애장도서관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에 전달하는 명사 40인의 애장도서관 '책 드림'행사가 열렸으며, 트라이볼 전시장에서는 명사 40인의 애장도서관, 인터뷰 등 전시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세계 책의 수도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을 기념하고 독서와 저작권 진흥을 위해 매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도시다.

인천은 멕시코시티 등 6개 도시와 경합한 끝에 2013년 7월 19일 세계 15번째, 아시아 3번째, 우리나라 도시 최초로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BOOKS FOR ALL,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정하고, '책 읽는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를 목표로 기념행사와 특별행사로 나눠 지난 1년간 모두 45개 사업을 추진했다.

책 읽는 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인 1책 읽고 쓰기 운동, 통합전자도서관 구축, 작은도서관 지원, 북 스타트 운동, 찾아가는 북 콘서트, 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및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김성배기자

‘2015 세계 책의 수도’ 22일 폐막

책의 수도 넘어 책의 도시, 인문도시’로

지난해 4월 23일 개막한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이 1년간의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2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2015 세계 책의 수도’ 폐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폐막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애장도서 추천 명사, 도서관 및 서점 관계자, 군인,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은 지난해 4월 23일 개막해 모두 6개 분야에서 4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날 폐막식을 끝으로 1년 간의 사업을 마무리 했다.

이날 폐막식은 사전행사인 ‘작은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오는 6월 은퇴하는 수봉도서관 송영숙 관장이 출간한 책의 판매 수익금을 인천 아동복지종합센터에 기부하는 도서 기증식이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세계 책의 수도’ 경과보고에 이어 인천의 우

수한 기록문화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을 통해 300만 시민이 함께하는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인문도시 인천을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무빙 샌드아트’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서, 지난 1년간 책의 수도 사업 추진 유공자(단체) 23명(시장상 16명, 의장상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명사 40인이 추천한 애장도서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중

합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에 전달하는 명사 40인의 애장도서 “책 드림”행사가 열렸으며, 트라이볼 전시장에서는 명사 40인의 애장도서, 인터뷰 등 전시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도서관 및 서점계 관계자들은 ‘인천의 독서향상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인천의 독서열을 향상시켜 인문도시 및 인천의 가치 재창조에 힘을 보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본 행사 후에는 특별프로그램으로 최원식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이 인천의 재발견, 인문도시 인천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통해 책의 수도를 계기로 인천의 역사와 문학을 재인식 하자고 강조했다.

통해 책의 수도를 계기로 인천의 역사와 문학을 재인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책의 수도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을 기념하고 독서와 저작권 진흥을 위해 매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도시다.

인천은 멕시코시티 등 6개 도시와 결합한 끝에 2013년 7월 19일 세계 15번째, 아시아 3번째, 우리나라 도시 최초로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바 있다.

인천시는 ‘BOOKS FOR ALL,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정하고, ‘책 읽는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를 목표로 기념행사와 특별행사로 나눠 지난 1년간 모두 45개 사업을 추진했다. 박영재 기자

현대일보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003면 종합

“독서열 향상, 인천가치 재창조 힘 보탬 것”

인천시, 송도서 ‘세계 책의 수도 폐막식’

지난해 4월 23일 개막한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이 1년간의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2015 세계 책의 수도 폐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폐막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애장도서 추천 명사, 도서관 및 서점 관계자, 군인,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은 지난해 4월 23일 개막해 모두 6개 분야에서 4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날 폐막식을 끝으로 1년 간의 사업을 마무리 했다.

이날 폐막식은 사전행사인 작은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오는 6월 은퇴하는 수봉도서관 송영숙 관장이 출간한 책의 판매 수익금을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에 기부하는 도서 기증식이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2015 세계 책의 수도 경과보고에 이어 인천의 우수한 기록문화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2015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을 통해 300만 시민이 함께하는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인문도시 인천을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무빙 샌드아트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서, 지난 1년간 책의 수도 사업 추진 유공자(단체) 23명(시장상 16명, 의장상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명사 40인이 추천한 애장

도서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에 전달하는 명사 40인의 애장도서 “책 드림”행사가 열렸으며, 트라이볼 전시장에서는 명사 40인의 애장도서, 인터뷰 등 전시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도서관 및 서점계 관계자들은 ‘인천의 독서열 향상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인천의 독서열을 향상시켜 인문도시 및 인천의 가치 재창조에 힘을 보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본 행사 후에는 특별프로그램으로 최원식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이 인천의 재발견, 인문도시 인천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통해 책의 수도를 계기로 인천의 역사와 문학을 재인식 하자고 강조했다.

인천/조희동 기자

jhd@hyundailbo.com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폐막... 용두사미 행사 전략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이 1년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인천시는 세계 책의 수도 선정에 맞춰 1년간 다양한 독서 진흥사업 추진으로 인천지역 독서 문화를 전파해왔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3일 개막한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은 그동안 6개 분야 45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2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시는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정하고 책 읽는 문화 생활화와 열악한 인천지역 창작 출판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인천을 책 읽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1인 1책 읽고 쓰기 운동, 통합전자도서관 구축, 작은 도서관

1년간 대장정... 대부분 일회성 그쳐 컨트롤타워 없어 기관들 ‘중구난방’

지원, 찾아가는 북 콘서트 등을 대표적으로 추진했다.

열악한 지역 창작출판 활성화를 위해 체험형 e-BOOK 전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가 활성화, 동네서점 살리기를 위한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시와 시교육청, 군·구는 물론 일반 사회복지시설까지 추진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중구난방으로 운영·관리되다 보니 적지않은 행사의 추진 시기가 1년에 그쳐 일회성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전자출판산업 육성과 저작

권 및 지적재산 바로 알기 사업 등 창작출판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2015년 이후 사업예산이나 추진계획을 갖추지 못해 단발성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배다리 도서관가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난항을 겪어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IT와 교육의 만남을 콘셉트로 내세운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관 또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종도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통해 도서관계, 교육계, 출판계 등 많은 기관이 독서 관련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같은 독서진흥정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민교·양광범 기자

현대일보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011면 인천

아름다운 인천 섬사랑운동 선포

市, 군·구 새마을회와 섬 지역 1대1 자매결연, 일손돕기 등 추진

새마을운동 제창 46주년을 맞아 인천지역 2만5천여 새마을지도자들이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을 펼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46주년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고 인천만의 가치재창조와 제2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시장, 노경수 시의회 의장, 방광설 인천시새마을회장, 군·구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퓨전국악단 ‘구름’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에 30년 이상 헌신봉사한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새마을기념장과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장 표창, 인천 섬 사랑운동 협약 체결 및 결의문 낭독, 기념사, 축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정복 시장과 방광설 회장은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11개 새마을회 대표와 11개 섬지역 대표가 자매결연증서를 교환했다.

또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대표가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인천 섬 사랑운동 선포식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애향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은 인천시새마을회가 ‘도와주GO 팔아주GO 찾아가GO’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정체성과 애향정신을 고취시켜 인천 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물론 인천만의 가치재창조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군·구 새마을회와 인천 관내 섬지역이 1대1로 자매결연을 맺고 섬지역 일손돕기, 문화교류 및 재능기부 활동, 특산물 애용운동, 인천 섬 즐겨찾기 캠페인 등의

사업을 군·구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표창을 수상한 우수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을 통해 2만5천여 새마을 가족들이 인천의 섬들을 방문해 우리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민들에게 확산시켜 인천의 섬이 사시사철 즐겨찾을 수 있는 명소로 자기잡기를 기대하며 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인천의 인구가 300만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위상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천주간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새마을회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희동 기자 jhd@hyundaiilbo.com



새마을회 인천섬 사랑운동 선포식

인천시새마을회(회장·방광설)는 지난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 선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새마을회는 제46주년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인천시와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또 인천 11개 새

마을회 대표와 11개 섬지역 대표가 자매결연증서를 교환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방광설 인천시새마을회장, 김은환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을 비롯해 군·구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방광설 회장은 “인천 새마을가족 2만5천여 명이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우리일보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009면 지역종합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 선포

인천군·구 새마을회와 섬 지역 1대1 자매결연

새마을운동 제창 46주년을 맞아 인천지역 2만5천여 새마을지도자들이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을 펼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광역시새마을회(회장 방광설) 주관으로 22일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46주년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고 인천만의 가치재창조와 제2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시장, 노경수 시의회 의장, 방광설

인천시새마을회장, 군·구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퓨전국악단 ‘구름’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에 30년 이상 헌신봉사한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새마을기념장과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장 표창, 인천 섬 사랑운동 협약 체결 및 결의문 낭독, 기념사, 축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정복 시장과 방광설 회장은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11개 새마을회 대표와 11개 섬 지역 대표가 자매결연증서를

교환했다.

또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대표가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인천 섬 사랑운동 선포식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애향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은 인천시새마을회가 ‘도와주GO 팔아주GO 찾아가GO’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정체성과 애향정신을 고취시켜 인천 섬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만의 가치재창조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군·구 새마을회와 인천 관내 섬지역이 1대1로 자매결연을 맺고 섬 지역 일손돕기, 문화교류 및 재능기부 활동, 특산물 애용운동, 인천 섬 즐겨찾기 캠페인 등의 사업을 군·구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재 기자

시의회 후반기 의장

새누리 소속 '4파전'



노경수 의장



박승희 1부의장



신영은 의원



제갈원영 의원

제 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물밑 선거전이 불붙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몇몇 의원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세력을 구축하는 중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4파전'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시의회는 6월7일 개최하는 제 233회 임시회에서 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간다.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최고 관심사는 후반기 시의회를 좌지우지할 의장 자리에 누가 앉느냐다.

현재까지 자전타전 후보로 올라있는 의원들은 노경수(중구 1·3선) 의장, 박승희(서구 4·3선) 제 1부의장, 신영은(남동 2·4선) 의원, 제갈원영(연수 3·재선)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들은 가운데 몇몇 의원들은 총선이 끝난 직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시의회 내부에서는 시의회 역사상 첫 '재임'에 도전하는 노 의장 그룹을 이른바 '친노(親노경수)'라고 부르고 있다. 이 밖에 박 부의장도 최근 비슷한 연배의 의원들을 모아 세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의장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분열될 경우 야권이 의장 자리를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있다. 35명 중 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1명.

새누리당 후보가 당내 의원 18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야당과 결합하는 후보가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시의회 “송도캠핑장 임대료 3분기째 미납”

경제청, 8월까지 밀릴 땐 해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24호 공원 캠핑장 민간사업자가 3분기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료 문제와 함께 공원 일부를 민간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류제홍 의원은 지난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에서 “송도 24호 공원 국제캠핑장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향후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송도국제캠핑장은 24호 공원 B지구 3만3천853㎡로 인천경제청이 39억원을 투입해 각종 시설을 갖추고 지난 2014년 8월 모 업체에 3년간 위탁했다. 당시 이

업체는 연간 임대료로 4억2천만원을 제시했다. 이 업체는 처음 1년간 임대료 4억2천만원은 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3분기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어 이자 900만원을 포함해 4억2천900만원이 밀려있는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체납처분 등 별다른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며 “오는 8월까지 1년간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세금으로 공원 일부를 캠핑장으로 조성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시민 접근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세금이 들어간 공원인 만큼 무료 개방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요한기자

경기신문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009면 지역

시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한다

시의회 관련 조례안 제정·가결
치료비 본인부담금·운영비 지원

인천시의회가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임정빈 의원(무소속·남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방안을 구체화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치매관리법 규정에 근거해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광역치매센터 운영비의 45~50%, 인건비 50~55%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해 올해 32억3천만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5년간 171억5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현진기자 kjh@

원고지에 오롯이 담긴 ‘푸르른 봄소식’



“내가 미래의 작가” ‘제14회 푸른 인천 글쓰기’ 대회가 지난 23일 인천대공원과 문학경기장, 계양산 산림욕장 일대에서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인천대공원에 단채로 참가한 인수초등학교 걸스카우트 학생들이 진지하게 글쓰기를 하고 있다.

이모저모

경인일보와 가천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4회 푸른 인천 글쓰기’ 대회가 지난 23일 인천대공원과 계양산 산림욕장 일대에서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문학경기장과 계양산 산림욕장이 글쓰기 대회장으로 추가돼 인천 시민들의 즐길 거리와 볼 거리가 한층 다양해졌다. ‘인천을 푸르게’란 구호로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된 푸른 인천 글쓰기 대회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천 최대규모 환경 관련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계양산산림욕장·문학경기장 ‘새로 선보인’ 글쓰기 대회장

처음으로 계양산 산림욕장과 문학경기장이 글쓰기 대회장으로 추가돼 인천 시민들의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한층 다양해졌다. 계양산 산림욕장 행사장(사진 왼쪽)에 참석한 박형우 계양구청장, 유동수 국회의원(계양갑) 당선자 등 내빈들과 문학 보조경기장에 마련된 행사장에 참석한 박우성 남구청장, 장승덕 남구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원고지를 배부하고 있다.

인천지역 주요인사 참석 학생들 격려

○…이날 각 행사장에는 인천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해 원고지를 나눠주며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환영.

인천대공원은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다불 이민주당 윤관석(남동구출) 국회의원, 이승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식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용근 신한은행 인천본부장 등이 참석. 전 부시장은 “인천시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시민 1명당 10그루의 나무를 심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했다”며 “아침에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실천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소망.

계양산 산림욕장 행사장에는 박형우 계양구청장, 유동수 국회의원(계양갑) 당선자, 이용범 인천시의회 부의장, 계양구의회 광성구 의장,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이준호 경인교대 창의인재교육센터 소장, 이희희 한림병원 이사장, 송영길 국회의원(계양을) 당선자의 부인 남영선 여사가 참석. 박형우 구청장은 “어린이 여러분과 시민들의 관심이 인천의 전산인 계양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이다”고 기원. 문학 보조경기장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박우성 남구청장, 김금용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남구의회 장승덕 의장, 배상록 부의장, 김익선 의원, 정재호 의원, 조순애 송학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 박우성 구청장은 “문학산이 개발되면서 뜻깊은 대회가 열리게 됐다”며 “문학산과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 펼쳐주길 바란다”고 축하.

대공원 깜짝 출동 기마경탈대 ‘시선집중’

○…인천대공원에 깜짝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기마경탈대는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 아이들은 이날 대공원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기마경탈대를 훑어다녀며 신기하다는 반응. 기마경탈대가 사전에 준비된 부스에 멈춰서자 아이들은 직접 말을 만지고 인형상을 찍으며 말과 교감. 인천지방경찰청 기마경탈대 김나운(33·여) 순경은 “기마경탈대는 일랑처럼 재빨리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무료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말을 매우 좋아한다”고 설명.

웅진군 섬마을학생 ‘불거리 많아 신바람’

○…인천대공원에선 인천 웅진군 영흥도 섬마을 학생 22명이 단채로 찾아 글짓기 삼매경. 학교에서 대절된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온 영흥초 학생들은 글짓기를 마친 뒤에는 동물원을 구경하고, 소망안전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 5~6년 동안 매년 푸른인천글쓰기대회에 참여했다는 영흥초 김선오(42) 교사는 “섬에 있다보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푸른인천글쓰기 대회는 글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설명.

송학초교생 화려한 응원공연 ‘들쭉들쭉’

○…인천문학경기장 보조운동장에서는 남구 송학초등학교 동아리 ‘송학복스타’의 열정적인 모습 북 웅원공원에 분위기 급상승. 송학초 학생들의 절도 있고, 우아한 무반주 난타 공연에 이어 인기 아이돌그룹 노래에 맞춰 춤을 걸었던 경쾌한 퍼포먼스에 구경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 어깨도 들쭉들쭉. 복채를 손으로 돌리는 ‘요기’에 구경꾼들의 감탄과 환호성 쏟아져. 송학복스타의 김아현(송학초 6) 양은 공연 직후 “지난해 동아리를 만들어 이번이 4번째 공연”이라며 “푸른 잔디밭에 모인 많은 또래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펼치니 더욱 즐거웠다”고 소감.

할머니·엄마들 가족 3대 ‘정겨운 글짓기’

○…계양산 산림욕장에서 나그네는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은 가족이 3편의 글을 제출해 눈길. 이에 진(초3) 양 가족은 ‘계양산’을 주제로 할머니, 엄마 등 3대가 원고지에 각자의 글을 한 편씩 쓰는 모습 포착. 이 양은 자신이 쓴 글과 할머니의 원고지를 바꿔 읽으며 서로 평가하기도. 이 양은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썼다”며 “글은 할머니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쓴 것 같다”고 귀띔. /서하림 사진/임순진·조재현기자 sseok@kyeongin.com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복채’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주변을 메운 참가자들이 글을 쓰고 있다.



기마경탈대 ‘인기폭발’ 인천대공원에 깜짝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기마경탈대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글쓰기 재미에 빠진 동심 전세버스를 타고 인천대공원으로 1시간 넘게 달려온 인천 웅진군 영흥도 섬마을 영흥초 학생들이 글짓기 삼매경이 빠져 있다.



도박도박 정성을 담아… 어머니는 ‘창작의 고인종’

아들과 함께 참가한 한 엄마가 웃기지도 못했을 거리고 아들과 작문에 열중하고 있다.

“송도 땅 추가매각 땀질식 우려”

시의회 기획위 계획안 가결
부작용 걱정 시선도 여전해
市 “용도변경 등 최선 노력”

24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인천시의 송도 국제도시 부지 매각 계획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1차 관문을 넘었다.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입찰이 이뤄지지만 ‘계획 없는 매각’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인천일보 4월11일자 1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인천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주상복합용지인 송도 국제도시 M1-1블록(4만9046㎡)과 M1-2블록(3만260㎡)을 일반 입찰로 처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산가액은 M1-1블록이 939억2328만원, M1-2블록이 579억4742만원으로 총 1518억7080억원에 달한다. 감정평가와 시가 조사를 통해 다음달 가격이 정해지는데, 시는 예상 감정가가 2399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위는 이날 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도 ‘땀질식 매각’을 우려했다. 과도하게 많은 땅이 시장에 나와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시는 A2·A5·A6 부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토지리턴제로 매각했다가 환매받은 R1부지도 매각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새누리당 이영훈(남구 2) 의원은 “전체 매각 토지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고려한 종합계획을 세워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가 협조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해 빠른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 땀질식으로 매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영은 의원(남동구 2)도 “부지가 매각돼야 부채를 줄일 수 있는데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주변 여건을 감안해 용도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는 토지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송도 공동주택용지 A2·A5·A6 부지를 매각하는 입찰을 재공고했다. 총 4297억원 규모로 다음달 4일 개최된다. 만약 A5·A6 부지가

전혀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녹지’로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M1 부지는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A5·A6부지는 층고 제한이 5층이라 어렵다”며 “A5·A6가 팔리지 않으면 용도를 녹지로 변경할 계획도 갖고 있다. 새 경제부시장에 취임하면 실현 가능한 매각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ilee@incheonilbo.com

경기일보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016면 사람들

국내 무예인 500여명 용인서 실력 발산

한민족 청소년 무예 대축전 성료

전국 무예인들의 합기도 실력을 겨루는 제6회 한민족 청소년 무예 대축전이 지난 23일 용인 일대에서 일반인과 청소년 무예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려하게 개최됐다.

(사)세계합기도무도연맹과 (사)한국화랑 청소년육성회가 주최하고, (사)세계합기도무도연맹 경기도협회와 주관, 서울시, 경기도·인천시의회, 용인시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용인실내체육관과 용인 대학교 종합체육관 등 두 곳에서 나눠 진행됐다.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 각각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눠, 합기도 개인전(겨루기·대련)·합기형·기장낙법(멀리)·스피드발차기·종합시범과 단체전 종목으로 나눠 실시됐다.



특히 오후에 열린 선수단의 기장낙법과 스피드발차기 시연 순서에서는 용인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최돈오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총재는 대회를 통해 “합기도는 전국 1천900개 도장에서 약 11만명이 수련하고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의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실현에 이바지하

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예인 합기도는 수련생 여러분의 자부심과 열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가 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윤석 (사)국제무도연맹 총재도 “아무췌로 배움이 있는 시합, 격려와 성장이 있는 시합, 만남이 인연이 되는 시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

새누리 시당, 탈당 시·구의원 6명 복당 허용

윤상현과 동반 탈당 인천 지방의원들 복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인천 지방의원 6명이 모두 복당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임정빈·김금용 시의원과 이봉락·박향초·김익선·이관호 인천 남구의원 등 6명의 복당을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朝鮮日報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A08면 정치

윤상현 따라 탈당했던 지방의원들 모두 復黨 尹의 복당 여부도 주목

총선 전 '막말 과문' 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과 함께 당을 나갔던 인천 지역 지방의원들이 모두 복당(復黨)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4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김금용·임정빈 시의원과 이봉락·김익선·박향초·이관호 구의원 등 6명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6명은 지난달 23일 윤 의원과 동반 탈당했고, 윤 의원이 지난 15일 복당 신청을 했을 때도 함께했다. 이관호 구의원의 경우 윤 의원의 정책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다.

인천시당은 복당 승인 이유에 대해 "당 최고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개혁적 보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바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윤 의원 등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복당도 조만간 허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당규상 탈당자가 복당을 하기 위해선 소속 시도당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타 정당·무소속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경우는 최고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옥진 기자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남구에 무소속 출마했던 윤상현 국회의원을 따라 탈당했던 광역·기초원들의 복당을 대거 허용했다.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거 복당된 것을 계기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남을)·안상수(중동강화옹진) 국회의원 당선인의 복당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시당에 따르면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의회 임정빈·김금용 의원, 인천 남구의회 이봉락·박향초·김익선·이관호 의원 등 지방의원 6명에 대한 복당을 허가했다. 또 4·13 총선에서 탈당 후 서구를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입후보했다가 중도하차한 홍순목 전 인천 서구의회의원에 대한 복당도 승인했다.

하지만 홍 전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만큼 중앙당의 재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의원 복당은 시·도당이 결정하지만, 국회의원 복당은 시·도당 의결을 거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김금용



임정빈

시당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무소속 당선인 복당에 대해 정

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시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과 당헌당규에 따라 복당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윤상현·안상수 당선인에 대한 복당과 관련해선 "신청된 (두 당선인의)복당신청서는 중앙당으로 넘긴 상황이지만 당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대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바로 복당되지 않겠냐 하고 전망하고 있지만 일단 이들 당선인의 복당 여부는 중앙당이 최종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ishin0205@incheonilbo.com

경인일보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003면 종합

윤상현發 탈당 지방의원 '다시 집으로'

새누리 인천시당, 6명 복당 허가... 홍순목도 허용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윤상현(남구을) 의원과 함께 탈당한 인천 지방의원들의 복당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남구지역 시의원과 구의원 6명에 대해 복당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6명은 임정빈(남구3), 김금용(남구4) 시의원, 이관호(라선거구), 이봉락(라선거구), 박향초(마선거구), 김익선(마선거구) 구의원이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윤상현 의원이 탈당할 때 당을 나갔던 지난 15일 윤 의원과 함께

복당을 신청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최고위원회 결정과 당헌·당규에 따라 복당을 허용했다"며 "(복당한 이들이) 앞으로 해당 지역과 당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고위는 총선 다음 날인 14일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인 보수와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에게 문호를 대개방하겠다"며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 의원과 함께 탈당한 지방의원들의 복당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윤 의원의 복당이 어떻게 될

지 관심사다. 최근 당 내부에선 화합을 위해 무소속 당선자를 모두 복당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방의원 복당 허용 여부는 광역시도당에서 결정하지만, 국회의원 복당하려면 중앙당 최고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새누리당 인천시당 자격심사위는 비슷한 시기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홍순목(당시 서구를 무소속 후보)씨의 복당도 허용했다. 그는 자기 출마 선거구에 황우여 의원이 전락 공천되자 지난달 21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지난 8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복당을 신청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새누리 인천시당, 탈당파 7인 복당 허용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당원과 시의원들이 일제히 복당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임정빈·김금용 시의원과 홍순목 서울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 7명에 대해 복당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복당 대열에 합류한 나머지 인물은 이봉락·박향초·김익선·이관호 남구의원 등 4명이다.

홍 전 후보는 황우여 의원 공

천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투표일을 앞두고 사퇴했고, 나머지 6명의 의원은 윤상현 의원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 윤 의원과 동반 탈당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당 안팎에 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최고위원회가 무소속 당선인들의 입당을 결정했지만 비박 등 반발 기류가 심해 복당이 잠정 연기됐기 때문이다.

자칫 중앙당이 비상사태에 놓

인 상황에서 인천시당 차원에서 다소 무리하게 복당을 결정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당 측은 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14일 긴급위를 열어 무소속 당선인 입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동의했고,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새누리 시당 자격심사위 총선 반발 집단탈당자들 김금용 등 7명 복당허가

안상수·윤상현 등은 중앙당 심사

4·13 총선 공천 결과에 반발해 집단탈당했던 인천지역 새누리당 당원들이 다시 복당 절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금용·임정빈 인천시의원과 김익선·박향초·이관호·이봉락 남구의원, 홍순목 전 서구의원 등 7명의 복당을 허가했다.

단 홍순목 전 서구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점을 감안해 새누리당 중앙당 최고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홍 전 의원은 인천 연수구가 지역구였던 황우여 국회의원이 20대 총선에서 인천 서구을로 지역구를 바뀐 출마하는 우선 추천이 이뤄지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러나 총선을 5일 앞둔 지난 8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복당을 신청했다.

이 외 6명 의원들은 취중 막말 녹취 파문으로 인해 공천에서 배제된 윤상현 의원을 지지하며 동반 탈당했던 지지자들이다.

지방의원의 복당은 광역시도당에서 결정하지만 국회의원의 복당은 시도당 의결을 거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안상수, 윤상현, 홍순목 등 3명은 총선 출마자이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심사가 한번 더 이뤄진다”며 “원래는 최고위원회가 없으면 비대위에서 해야하는데 둘다 없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총선 직후 무소속 당선자 입당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에게 문호를 대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라다솜기자

윤상현 복당 초읽기

새누리 인천시당, 동반탈당 시·구의원등 7명 복당 허가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윤상현 의원(사진)과 동반 탈당한 시·구의원 6명과 홍순목 서구를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의 복당을 허가했다.

24일 인천시당에 따르면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주인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임정빈·김금용 시의원과 이봉락·박향초·김익선·이관호 남구의원 등 6인과 홍순목 후보의 복당을 결정했다.

이번에 복당이 결정된 시·구의원들은 지난 3월23일 윤상현 의원이 탈당할 때 함께 탈당했다가



총선 직후인 지난 15일 함께 복당을 신청했다.

홍순목 후보는 3월21일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지난 8일 후보직

을 사퇴하면서 복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윤상현 의원의 복당도 초읽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무성 대표 욕설 파문’의 주인공인 윤상현 의원(인천 남

을)은 지난 15일 새누리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윤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김무성 XX 버려’ 등 비박계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중 통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공천에서 컷오프 됐고, 이에 반발한 윤 의원은 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지방의원의 복당은 광역시·도당에서 결정하지만, 국회의원의 복당은 시·도당 의결을 거친 뒤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윤상현과 동반 탈당 시·구의원 새누리 복당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최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4·13 총선에서 탈당한 임정빈·김금용 시의원과 서구를 홍순목 후보 등 7명이 낸 복당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임정빈·김금용 시의원과 이봉락·박향초·김익선·이관호 남구의원 등 6명은 지난달 23일 윤상현 국회의원과 함께 탈당했으며 지난 15일 복당을 신청했다. 홍순목 후보는 지난달 21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지난 8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복당을 신청해 복당이 허가됐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 안상수 국회의원의 복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윤 의원의 복당 여부는 시당 의결을 거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된다. 정민교기자

새누리당 인천시당 당원자격심사, 탈당 일곱명 복당 허가

새누리당 인천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최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임정빈, 김금용 시의원, 홍순목 서구를 국회의원선거 후보(무소속) 등 7인에 대해 복당을 허가했다.

임정빈, 김금용 시의원과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이관호 남구의원 등 6인은 지난 3월 23일 윤상현 국회의원이 탈당할 때 함께 탈당했으며 이달 15일 함께 복당을 신청했다.

또 홍순목 서구를 국회의원선거 무

소속 후보는 3월 21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지난 8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복당을 신청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무소속 당선자 입당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인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대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경기신문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009면 지역

새누리 시당, 윤상현과 동반탈당 시·구의원 등 7명 복당 허용

탈당 국회의원 무소속 후보 포함
“최초리 결과에도 명분없는 결정
윤 의원 복당 염두둔 선제 조치”
인천정가 일각 비난 목소리 커져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과 동반탈당을 했던 시·구의원들의 복당을 허가하며 당 재정비에 나섰지만, 명분 없는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임정빈, 김금용

시의원 등 7인에 대해 복당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복당을 하는 의원은 임정빈(남구3), 김금용(남구4) 시의원, 이봉락(남구2), 박향초(남구마), 김익선(남구바), 이관호(남구라) 남구의원과, 홍순목 서구를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 등 7명이다.

앞선 6인은 지난달 23일 공천 탈락으로 윤상현 국회의원이 탈당할 때 동반 탈당했으며, 지난 15일 윤상현 의원과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지난 8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복당을 신청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 결정과 당헌·당규에 따라 7인에 대해 복당 허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복당 허가를 두고 윤상현의원의 복당을 염두한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13 총선에서 인천지역은 국회의원 13석 중 7석을 차지하며 새누리당의 우세를 예측했지만 그에 절반에 미치는 4석을 차지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윤상현 의원의 복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인천정가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시·구의원들의 복당은 후반기 의회 개원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인천시민들에게 회초리를 맞은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 나타난 시민들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복당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새누리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무소속 당선자 입당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인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현진기자 khj@

3개 시도에 넘어간 ‘대체매립 결정권’

부지 개별·공동 사용 여부 놓고
작년 4자협 합의 해석 혼란 있어
추진단, 7월 전에 교통정리 주문

〈속보〉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공이 다시 수도권 4자 협의체로 넘어갔다.

24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따르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오는 7월 예정된 추진단 회의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3개 시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따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대체매립지 조성 방법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6월 합의된 ‘수도권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중 대체매립지의 개별 또는 공동 사용을 전제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합의 문

구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체매립지 용역의 원칙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개별로 사용할 것인지를 민간이 포함한 추진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4자 협의의 문구 안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다음 회의까지 3개 시도가 방침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인천시가 추천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위원으로, 최근 열린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동 사용을 전제로 했을 때 또 다른 논란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회의에서도 내가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서 당황스러웠고, 때문에 3개 시도에 방침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는 3개 시도에 공이 넘어갔으며, 유권해석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영구 사용 또는 종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참여한 2명의 인천지역 전문가 모두는 대체매립지 공동 사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경두 선임연구원은 “인천에서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쓸 대체매립지만을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3개 시도의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처리하는 매립지만을 대상으로 논의한다면 수도권매립지를 변칙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쓰레기는 나오는 곳에서 각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배출지 처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공동 사용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수 시대변인은 “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사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며, 3-1공구의 한시적 사용 이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체매립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26일 인천시청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jih@khihoilbo.co.kr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인천일보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002면 종합

180억 법정 공방 시작된다

IPA, 市 ‘부지 매입’ 불이행에 訴 제기 ... 내달 4일 1차 변론

월미도 갑문지구를 매립하고도 5년이 가까워지도록 인천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지 못한 인천항만공사(IPA)가 180억원 민사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시와 IPA는 갑문지구 매매대금 지급 소송 1차 변론이 다음달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IPA가 지난해 11월 시를 상대로 갑문지구 조성원가 139억9000만원과 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해 총 소송금액 18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갑문지구는 월미도 남측 문화의거리 옆에 매립된 땅이다. 부지 면적만도 축구장 3개 크기인 2만462㎡에 이른다.

앞서 IPA는 지난 2007년 9월 시와 ‘인천해양과학관·인천홍보관 건립에 관한 협약’을 맺고 채권을 발행해 공영수면을 매립했다. 향후 시가 이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해 해양과학관을 세운다는 조건이었다.

매립은 2010년 9월 끝났다. 이때부터 IPA는 ‘희망고문’에 시달렸다. 시는 해양과학관 건립이 사업타당성 문제로 무산되자 국비를 확보해 인천상륙작전 평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처럼 사업이 번번이 좌초되면서 IPA는 이자비용까지 떠안았다. 시의 계획만 믿었다가 5년째 매립비를 받지 못한 채 이자를 대는 신세가 된 것

이다.

IPA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협약을 이행되길 바라지만 시가 부지를 살 여력이 없다면 버티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에 기대는 것 말고는 지금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비를 끌어오는 데 실패한 시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다.

시 항만공항정책과 관계자는 “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협약을 계약서에 준해 봐야 할지 여부 등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시 경제부시장 ‘정무형’ 선임 무게

총선 뒤 홍순만 사퇴 공석…내달 2~4일 원서접수

여소야대 정국…시 “지역·정치권 가교 인재 기대”

공석인 인천시 경제부시장 후임을 놓고 인 천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년 임기의 반환점 앞에 선 유정복 시장이 4·13 총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실무형보다는 정치적 무게와 시의회,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무형을 선임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 하다.

시는 4·13 총선 직후 사퇴한 홍순만 경제부 시장 후임을 인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홍 전 경제부시장 사퇴 직후 후임 채용 시험 시행 공고를 냈다. 5월 2~4일 사흘간 원서 접수에 이어 9일 서류전형, 10일 면접시험 후 바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가 원하는 경제부시장은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정부적 업무 수행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소

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거나 선출직 공무원, 학 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자격 요건이다.

경제부시장은 ‘정무’와 ‘실무’, 두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무를 겸 비한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실제 민선 6기 첫 번째 경제부시장으로 취임 했던 배국환 씨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최악의 재정난에 시달리던 인천시에 구원투수 가 될 것이라 기대가 컸다. 유 시장의 시장직인 수위원회인 ‘희망인천준비단’ 부단장을 지내 며 취임 전 시정을 꿰찼다. 그는 취임 후 ‘재정’ 관련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벌였지만 1년을 채 우지 못했다.

이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소유했 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출신의 홍순만 씨가 두 번째 경제부시장에 올랐다. 국비 확보와 인 천발 KTX 등이 이뤄졌지만 홍 전 경제부시장

도 8개월 만에 단명했다. 더구나 그의 사임 이 유가 ‘타 기관’을 위한 것이라 뒷말에 되레 민 선 6기가 인물난 논란까지 휩싸였다.

유 시장은 4·13 총선 후 정치 변화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여소야대로 재편되며 여권 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박근혜 정부의 후반 기 정국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 시장은 인천지역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 7명의 국회의원도 상대해 야 한다. 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진다. 외부적 정치요인이 바뀐 상황에서 정무적 기 능이 가동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경제부시장 체제로는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을 효율적으로 끌여가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후임 경제부시장은 ‘정무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 안팎에선 4·13 총선 낙선 자 또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염두에 둔 인물 등 이 거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임 경제부시장은 지역과 시 의회, 정치권 등과 시 정부간 가교 역할을 할 인 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에 맞춰 조직 개편 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u96@incheonilbo.com

경기일보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I03면 인천

‘누리예산’ 의무편성 밀어붙이기… 시교육청 ‘재정대란’ 부채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인천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을 겨냥해 대대적 재정 지원정책 개편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누리 과정으로 대표되는 국가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못박을 경우 가뜰스 재정기 열악한 시교육청의 극심한 재정난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 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 내용 을 담은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에 준해 교부 하는 교육교부금이 계속 증가하지만, 일부 사·도교육 청이 법정 의무지출사업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언 급, 이청연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 성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겨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 육세 지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누리과정 등 국가 주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

정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진보교육감 누리예산 편성 거부 겨냥
여소야대 20대 국회 법안 통과 미지수

다. 올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이 6월 말로 모두 소진될 정도로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사용이 의무화되면 결 국 다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884억 원이던 시교육청의 누리 과정 예산은 올해 2천388억 원(어린이집+유치 원 합계)으로 급증, 인천 500여 개 초·중·고교 연간 운영비인 2천400억 원에 육박한다. 그러 나 같은 기간 정부의 추가지원은 전혀 없어 그 동안 시교육청은 고육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늘리는 등 사실상 빚을 내 운영해왔으며 정부 가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으 로 교과교실제, 마이스터고 혁신학교 지정 등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부금 비율 을 현행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올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 분야 재정개혁과제를 담 은 특별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로 했다. 그러나 4·13 총선으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석수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압도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법안이 제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양광범기자

“교동대교 건설 후 제방 무너지기 시작”

<강화도~교동도 연결 3.4km>

강화 상용리 월선포 선착장 인근
흙·돌 유실... 곳곳서 붕괴·침식

주민 “물길 변화 유속 빨라진 탓”
36개 교각, 원인 지목·대책 요구

郡 “다리와 무관 해수 흐름 영향”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교동대교(3.4km)가 건설된 이후 물길이 바뀌고 유속이 빨라져 인근 제방이 붕괴·침식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낮 12시께 인천시 강화군 상용리 월선포 선착장 인근 제방. 제방 곳곳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4~5m 너비의 제방은 곳곳이 떨어져 나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일부 구간은 이미 제방의 상당 부분이 유실돼 폭이 1m도 채 남지

강화 상용리 제방 위치도



않았다.

월선포선착장 인근의 용정방조제는 지난해 5월부터 제방을 지탱하는 돌이 바닷물에 유실되면서 일부 구간이 무너져 내리자 강화군이 최근 보수 공사를 마쳤다. 지난해 2013년에는 1km(상부 폭 8m) 길이의 제방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방 안쪽에 있던 양식장(8만9천100여㎡)의 송어와 대하 4만여 마리가 모두 바다로 쓸려나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 위치도 참조

교동 주민들이 제방이 무너져 내린 원인으로 교동대교를 지목하고 있다. 강화와 교동 사이를 흐르는 바다는 평소 때도 유속이 빠른 곳인데, 다리 교각까지 만들어지면서 물살이 더욱 빨라지면서 이곳 일대가 침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동대교는 왕복 2차로로 만들어졌으며, 50m 간격으로 총 36개의 교각이 설치돼 있다.

주민들은 “2010년부터 독 앞쪽으로 완만하게 펼쳐져 있던 갯벌이 쓸려나가 독을 쌓은 돌이 유실되기 시작했다”며 “교동대교 건설공사로 물길이 바뀌고 유속이 빨라져 독 붕괴와 해안지형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용리 제방 안에서 송어와 대하양식을 했던 송성호(56)씨는 “1987년 제방이 만들어진 후 지금껏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없다”며 “30년 가까이 멀쩡하던 독이 다리건설 이후 무너져내린다면 웅진군에서 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강화군은 이 일대 제방이 붕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동대교 건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주민들과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월선포선착장 인근 제방들의 흙이 유실되고 있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리 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등을 봐도, 침식에 의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고, 자연스러운 해수의 흐름에 따라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호·김주영기자 kij86@kyeongin.com

인천일보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002면 종합

인천 공무원 경쟁률 28대 1

308명 모집에 8740명 응시
운전 9급 ‘125.5대 1’ 최고

‘인천시 2016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28대 1(308명 모집에 8740명 응시)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 경쟁률 42대 1(172명 모집에 7370명 응시)보다는 낮지만, 응시인원은 전년보다 1370명이 많았다.

직렬별로는 행정(일반) 9급이 10

3명 모집에 5150명이 지원해 50대 1, 전산 9급은 3명 모집에 189명이 지원해 62대 1, 보건 9급은 11명 모집에 301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간호 8급 24대 1, 세무 9급 54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운전 9급(남구)은 2명 모집에 251명이 지원해 125.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세무와 공업은

각각 1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다.

최종 경쟁률은 오는 28일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종료된 후 확정될 예정으로 29일 이후 인천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시는 오는 6월18일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7월15일 필기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ji96@incheonilbo.com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시설물 인수 돌입

市, 비용 놓고 국토부·도로공사 힘겨루기 불가피

인천시가 오는 2017년 시로 이관될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을 위한 시설물 인수 절차에 돌입한다. 향후 관련 비용을 놓고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의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맺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인천항 IC 구간(10.4km) 이관협약에 따라 이 구간 시설물 일체를 이관받기 위한 인수인계단이 다음 달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16개 분야 32명으로 인수단을 꾸려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관 대상은 도로포장, 방음벽, 교량, 옹벽,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 전부이며 다음 달 2일 도공 측과 실무회의를 갖고 유지관리 매뉴얼 등에 대한 서면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활동한다.

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설물 보수·보강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점검이 끝나면 서인천~인천항 구간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일반도로화에 따른 개량 범위와 비용 등을 향후 국토부, 도로공사 간 3자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도로화 전환 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시와 최소한의 예산을 지출하려는 정부기관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0km에 달하는 도로가 시 재정으로 관리하는 광역도로로

전환되는 만큼 시의 입장에서는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해 이관 전 최대한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이다.

특히 시는 경인고속도로 이관에 맞춰 남구 주안동 6공단 고가교~문학동 문학 IC 간 지하도로를 건설(연장 3.1km, 왕복 4차로, 대심도 터널),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잇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정부 검토를 통과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50%는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이관과정에서 최대한 사업비를 아껴야 하는 상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추진해 적기에 일반도로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태양의 후예’ 인천 촬영지 관광객 ‘북적’

“여기가 ‘송송커플’ 앉았던 자리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카페는 최근 종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송송커플(송중기·송혜교)’이 앉았던 테이블을 차지하기 위한 손님들로 북적인다.

이 카페는 송송커플 메뉴와 기념품을 판매하는 등 벌써부터 외래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한류 드라마 촬영지에 국내외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자, 인천시와 관광공사는 ‘태양의 후예’의 배경으로 노출된 송도국제도시와 월미도를 한류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태양의 후예’가 촬영된 곳은 총 7군데다.

▲아시아프린스가 운영하는 월미도 사격연습장(1회) ▲BB탄총으로 오토바이 도둑을 잡은 개항장 신포동거리(1회) ▲병원 이사장이 허세를 부렸던 송도국제도시의 특급호텔(2회) ▲첫 이별을 했던 카페(2회) ▲컨벤시아대로 ‘구원(진구·김지원) 커플’의 첫 키스(13회), ▲VIP 경호임무를 맡았던 G타워(14회) ▲송송(송중기·송혜교) 커플의 달콤했던 논현동 세차장(16회) 등이다.

특히 구원커플의 첫 키스를 촬영했던 송도 컨벤시아대로 장면은 13회 최고의 1분으로 선정되는 등 분당 시청률 33.5%를 기록했다.

앞으로 공사는 드라마 속 달콤한 커플들의 사랑이야기와 한 국남자와 군인, 의료봉사 등 주요 스토리 라인을 중심으로 인천관광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월미도를 중심으로 연인들의 대표 데이트 코스인 ‘로맨틱 태후’를 비롯한 촬영지를 배경으로 한 이색카페 등이 관광 콘텐츠로 선보인다.

공사는 아울러 ‘우리가 더 달콤해-태후 따라잡기’ SNS 온라인이벤트도 진행한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인공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이 앉았던 송도국제도시 카페 의자에 서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관광공사

인천일보

조승연 시의료원장 사임 표명...후임 미정

지난 2010년부터 인천시의료원을 이끌어온 조승연(사진) 원장이 사임한다. 조 원장은 타 지역 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공의료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최근 조 원장이 유정복 시장에게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 원장이 유 시장에



끌어왔다. 3년 임기를 마치고 2013년 재임됐으며 민선 6기 시 정부 들어서

게 직접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며 “후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 임명돼 현재까지 의료원을 이

도 원만하게 의료원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가천의대 교수, 인천적십자병원의료부장과 병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조 원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19일까지다.

조 원장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천에서 의사로 30년을 일했다. 정든 인천을 떠날 것 같다”며 “그동안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에게 아직 인사를 못 드렸다. 조만간 말씀드리게 될 것이다”고 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